

고물가에 내수부진 지속...광주·전남 경제지표 '암울'

소매 판매·건설 수주·수출 등 대부분 경제 지표 전년보다 대폭 하락 광주 소매판매액 11분기 연속 감소...지수 통계 작성 이후 최장 기록

광주·전남지역 경제 지표가 전년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물가로 인한 소비 감소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광주·전남은 소매판매, 건설 수주, 수출 등 대부분 경제 지표가 1년 전보다 하락했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광주시 소매판매액 지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장기간(11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분기 호남권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 3분기 광주시 소매판매액 지수는 94.9로 전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광주시는 모든 업태에서 감소세를 보였는데 백화점이 7.0%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대형마트(-5.0%), 전문소매점(-4.6%),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1.8%) 순이었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민들이 소비를 줄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수주액 역시 대폭 감소했다. 올 3분기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28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6% 줄었다.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올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77.1% 감소하며 6년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데 이어 1분기만에 또다시 기록을 갱신했다.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부문(-38.3%)과 민간부문(-83.1%)이 모두 감소했다.

광주시는 올 3분기 수입·수출도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 3분기 광주 수출액은 37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1.4% 감소했다. 업종별로 섬유·피혁기계(1605.7%), 연연초(874.0%) 등은 증가했지만, 축전기와 전자(-68.1%), 프로세스와 컨트롤러(-

46.8%) 등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광주시 수입액은 18억달러로 전년 동기(41.8%) 등은 수입이 늘었지만, 인쇄회로(-32.0%) 등에서 줄어 전년 대비 2.8% 감소했다.

전남의 경우 편의점과 연료소매점 등에서 소비가 증가하며 소매판매액 지수가 증가 전환했지만, 이밖에 대부분 경제지표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올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는 97.1로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다. 전문소매점(-5.1%), 대형마트(-9.1%)가 감소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9%), 슈퍼마켓-잡화점 및 편의점(4.9%)이 증가한 영향이다.

전남 건설수주액은 올 3분기 기준 5296억원으로 1년 새 50% 감소했는데, 공공부문에서 26.9%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에서 77.2% 감소했다.

이 밖에도 전남지역 수출액은 109.9억달러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전남지역 주력 수출 분야인 선박(119.7%) 등은 수출이 늘었지만, 기타 인조플라스틱 및 동 제품(-23.1%), 기타 석유제품(-16.6%), 경유(-12.9%)이 감소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프리미엄 가전 '데이코' 광주 첫 선
광주신세계가 지역 최초로 분관 8층 삼성 스토어 매장에 프리미엄 가전 브랜드인 '데이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오는 17일까지 데이코 2개 품목 이상 구매 시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데이코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가 인수한 미국의 대표적 럭셔리 가전 브랜드로, '빌트인 냉장고' 등 대표 제품들이 뛰어난 위생과 고급스러운 디자인 등을 지녔다는 특징이 있다. 광주신세계 데이코 직원이 '빌트인 냉장고'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성과 워크숍

혁신 사례 공유·지원 방향 논의 등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이하 광주 TP)가 지난 8일까지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2024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통합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시 및 광주테크노파크가 공동 추진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워크숍

에는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 대표와 실무자, 관련 전문가 160여명이 참석해 기업들의 혁신 사례와 애로사항을 나누고, 정책적 지원 방향과 미래 사업 추진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한국알프스, 대우에이텍, 미보 등 스마트공장 구축에 성공한 기업들이 참여해 성공적인 구축 과정과 그로 인한 성과를 공유했으며, 2025년도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의 구체적 계획 수립을 위한 조별 토론회와 발표가 진행되었다.

스마트공장은 제조업의 혁신에 필수 요소로 자

리 잡으며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마련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 있다.

김영집 광주 TP 원장은 "이번 워크숍이 스마트 제조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들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GICON, 정보보호 해커톤대회 성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은 지난 8-9일 화순 금호리조트에서 '2024 호남지역 정보보호 해커톤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대회는 광주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고, GICON과 호남정보보호지원센터, 전남대학교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원사업단이 공동주관했으며, 웹 해킹, 포렌식 등 모의해킹 기술을 적용한 문제들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점수를 적립하는 CTF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대회에는 호남지역 일반인 및 대학생 26개 팀, 91명이 참가했다.

대회 첫 날에는 웹 해킹, Pwnable, 리버싱, 포렌식, MISC 등 5개 분야의 난이도별 문제를 해결하는 본선을 진행했다. 이어 두번째 날에는 ▲정보

보호 분야 산업전망(조정현 엔지니어링) ▲업계 선배와의 대화(황인성 한국전력공사) ▲해커톤대회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산대의 '미룬이 팀'이 1위를 기록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어 2위는 전남대와 포곡대가 연합한 'EEEE 팀', 3위는 한전KDN의 'White Ares 팀'이 차지하는 등 총 7개팀이 수상했다.

이경주 GICON 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2회차 정보보호 해커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며 "향후에도 지역 내 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인식제고 및 저변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전남테크노파크, 수출희망기업 해외시장 진출 견인 역할 '톡톡'

상담액 900만 달러·수출협약 19건 등

(재)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 TP)가 전남 수출희망기업 대상 현지 중심 수출지원 전략 추진으로 해외시장 진출의 적극적 견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전남 TP는 전남지역의 수출판로 개척을 희망하는 기업 10개사 및 현지수행센터(KTE Trading, 태국) 선정과 함께 '2024년 해외시장개척단'을 태국(방콕)과 캄보디아(프놈펜)에서 각각 운영했다.

해외시장개척단 프로그램은 수출희망국가 사전수요를 통해 초청바이어와의 일대일 수출 상담을 한 뒤 협약(MOU)을 체결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해외시장개척단은 현지기업 72개사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총 상담액 900만 달러, 계약추진액 350만 달러, 수출협약 19건을 달성했다. 오는



13일부터 여수에서 개최되는 '해외수출 페스티벌'과도 참여기업을 연계해 수출성과 시너지를 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전남 TP는 현지 해외비즈니스센터 활용해 지역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수출 성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원장은 "이번 행사로 우리 지역 우수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글로벌 판로 개척에 한발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오비맥주, 논알코올 음료 선제 공략 나선다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제품 출시

오비맥주가 인기 제품 '카스 레몬 스퀴즈 0.0'를 병 제품(330ml)으로도 출시, 꾸준히 확대되는 논알코올 음료 수요를 선제 공략한다. 과일맛 논알코올 음료 제품 중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병제품이다.

카스 레몬 스퀴즈 0.0 병 제품은 11월부터 트렌디 포차, 이자카야식 주점 등 유흥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색다른 음용 경험과 다양한 맛에 대한 관심이 높은 Z세대가 즐겨 찾는 채널을 중심으로 논알코올 음료의 차별화된 선택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는 전략이다. 카스 레몬 스퀴즈 0.0은 알코올 도수 0.05% 미만인 '논알코올 음료'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31.66 (-29.49)
↓ 코스닥	728.84 (-14.54)
↑ 금리(국고채 3년)	2.901 (+0.012)
↑ 환율(USD)	1395.15 (+8.75)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광주문화신협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